

“가을 여행은 오감 만족 전남으로”



12일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 열리는 가을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색색들이 피어난 꽃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순천만습지·신안 자은도·장성 황룡강 도 ‘10월 추천 여행지’ 선정...가을옷 갈아입는 자연 속 ‘힐링’

전남도가 가을 정취를 만끽할 매력적인 여행지로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 순천만습지, 신안 자은도, 장성 황룡강을 10월 이달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마치고 남양주로 돌아갈 당시 1년간 재배한 차와 제자들의 연구 업적을 기념하는 곳이다. 차를 만드는 곳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현대식 카페 ‘백운차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출산 아래 위치한 초록빛으로 가득한 차밭 풍경을 감상하며 제다와 다도체험을 즐길 수 있다. 백운유적지를 비롯해 다산 정약용이 마셨다는 떡

차도 맛볼 수 있다.

순천만습지는 2006년 국내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랍사르습지에 등록된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자연경관 명소다. 갯벌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데크 탐방로는 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걷기 좋다. 순천만 ‘어싱길(Earthing trail)’에서 맨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 습지 입구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마련돼 반려견과 함께하기에 좋다. 순천만국가정원 박물관에 펼쳐진 억만 송이 국화꽃 정원을 둘러보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신안 자은도는 신안에서 아름다운 해변이 가장

많은 곳이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문화의 달 행사가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 1004섬, ‘예술’로 날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펼쳐지는 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판소리 공연을 감상하며 눈과 귀가 호강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장성 황룡강에선 오는 15일까지 가을꽃 축제가 열린다.

매년 가을이 되면 황룡강변 주변은 코스모스, 핑크몰리, 천일홍, 해바라기 등 10여 송이의 가을 꽃이 만개해 ‘꽃강’이라 불린다.

알록달록 가을꽃으로 꾸며진 테마정원을 배경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멋진 사진을 남겨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밤 9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역시에만 적용했던 5등

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및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매년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 12월 단속에 앞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회(1차 10월16-27일, 2차 11월6-24일) 모의 단속도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만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청소년 돌봄 대책·교복값 담합 질타

박미정·박필순 시의원 대책 촉구...이정선 교육감 “시민 의견 듣겠다”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아동·청소년 돌봄 대책 문제와 교복값 담합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박미정(민주·동구 2) 광주시의원은 이날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돌봄공약 실행 등 관련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며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광주 다음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상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돌봄 교육정책은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지역 초등생 4명 등 총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교육예산의 통폐합을 통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필순(민주·광산3) 의원은 광주지역 교복판

매·대리점의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을 구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생한 161억 원의 교복 업체 담합으로 시민 피해 32억 원이 발생했다”며 “모니터링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인데 교육청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복 입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현행 교복을 유지할 것인지 평상복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행정적 지휘·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학부모 손해에 대해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행 교복 체제 변경 여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복 구매 방법 등을 담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평상복과 교복을 함께 입는 ‘생활교복’을 도입하거나 교장이 인정하는 평상복을 도입하는 방안을 만들어 학교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K-푸드시대 선도 ‘광주 식품 대전’ 개막

15일까지 DJ센터...450개 부스 운영 기업 판로 개척 지원

먹거리 산업화를 모색하는 광주 식품 대전이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식품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광주 국제 차(茶) 문화전시회와 함께 열린다.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대한민국 식품명인관, 광주 명품김치관, 전통주 특별관, 제주 특별관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유기농 건강식품, 식품 산업기기 등을 선보이며 수출·구매 상담으로 기업들의 판로 개척도 돕는다.

300개 사가 450개 부스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지난해 12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호남권 최대 식품산업 박람회의 명성을 다진다.

가정용 광주시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해외에 나가면 한식당이 아니어도 김치, 김밥, 라면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라며 “맛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야말로 음식을 산업화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케이(K) 푸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수목비엔날레 관람 인증하면 선물

누리소통망 온라인 이벤트...관람객 135명 추첨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오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블로그를 포함한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시관 후기 이벤트를 개인 누리소통망에 전시관 관람(사진) 후기를 올리고 누리소통망 필수 해시태그(@sumuk.biennale, #2023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비엔날레, #후기이벤트)를 남기면 된다.

수목비엔날레 공식 누리소통망에선 조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전시관 후기 이벤트 45명, 조성 퀴즈 이벤

트 90명, 총 135명을 선정해 커피·햄버거·아이스크림을 증정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이벤트를 통해 비엔날레의 홍보 효과를 끌어올리고 관심이 더욱 높아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